

“광주비엔날레, 독보적 국제 미술행사 자리매김”

조인호 광주미술문화연구소장

30년 담은 ‘청춘 비엔날레’ 발간
‘민주·인권도시’ 정체성 차별화
“전시관 등 도시 인프라 확충을”

“광주비엔날레는 광주를 넘어 아시아 아트씬이 현대미술로 확장돼 가는데 큰 족적을 남겼어요. 흥행, 내용 등 여러 방면에서 30주년에 걸맞는 이벤트가 되길 바랍니다.”

조인호 광주미술문화연구소 소장이 광주비엔날레 창설 30주년 및 제15회 행사 개막을 앞두고 그동안의 발자취를 엮은 ‘청춘 비엔날레’를 발간했다. 조 소장은 지난 1996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비엔날레 재단에서 전시부장, 기획실장 등을 역임하며 가장 가까이에서 긴 시간 동안 그 현장을 마주한 인물이다.

그는 “광주비엔날레는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도시의 색깔을 드러내면서 정체성을 확립, 단계적 발전을 거듭했고 ‘비엔날레’ 이름을 건 국내 30여개 행사 중 독보적인 위치를 이룩했다”고 평했다.

이번에 발간한 책은 광주비엔날레 출범 배경부터 역대 수장, 전시, 반향 등을 설명하며 30년 역사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한다.

조 소장은 “어느날 갑자기 광주에 비엔날레가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국제미술 행사를 광주에 유치하고 30년 동안 이어 나가는데 고군분투한 인물들과 사건이 있었다”며 “햇수로 23년, 광주비엔날레는 내게 청춘의 현장이었다. 앞으로도 이어질 광주비엔날레 역사에서 한 시절을 비추는 기록으로 소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주비엔날레는 미술관을 벗어난 전시 연출로서 ‘한국에서도 현대미술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충격과 큰 반향을 일으켰다.

조 소장은 “주제를 풀어내는 방식, 표현, 소재 등 다양한 방면에서 낮은 경향이 가능해졌다. 1990년대 외국을 나가야만 경험할 수 있던 생소한 아트씬이 광주라는 지역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전통 남도미술이라는 틀이 깨지고 이른바 ‘비엔날레 키즈’가 출현했다. 청년, 신진 작가를 포함한 미술평론가, 큐레이터, 일반 시민들까지 비엔날레를 경험하면서 사고의 폭이 넓어졌다”고 말했다.



조인호 광주미술문화연구소 소장이 광주비엔날레 30년 역사를 되돌아 본 ‘청춘 비엔날레’를 펴냈다. 조 소장은 광주비엔날레가 여러 악조건을 극복하고 독보적인 국제 미술행사로 자리매김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근 상하이, 베이징, 요코하마 등에서 치러지는 비엔날레와 비교해서도 광주라는 도시의 정체성과 색깔이 확연히 드러난다는 측면에서 압도적이다”며 “대부분의 역대 예술가들도 초기 전시기

획단계부터 5·18민주화운동에서 출발한 민주, 인권, 공존, 연대의 메시지에 공감하며 광주에 접근하곤 했다. 서울, 부산과 비교해서 관광·교통 인프라가 전무한 악조건에도 광주에서 비엔날레 열려야 하는

이유였고, 결과적으로 세계 미술인의 주목을 이끈 성공사례로 이어졌다”고 평했다.

앞으로의 30년에 대해서는 △교육·연구사업 확대 △아카이빙 작업 △전문지 발간 등 세 가지 측면을 강조했다.

조 소장은 “현재 비엔날레는 행사 개최 시기에 맞춰 단기 성격의 전문기획자 양성과정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광주 대표 아카데미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며 “30년 역사를 체계적으로 조망한 아카이빙 사업이 필요하다. 언제든지 광주비엔날레를 감상할 수 있는 ‘상설관’이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광주비엔날레는 창설 30주년을 기점으로 새 전시관 건립 등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다. 대표 비엔날레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도시의 인프라가 확충될 필요가 있다”며 “광주미술의 외연 확장을 거듭하고 국내의 현대미술 현장의 주요 거점 중 하나로 자리하게 된 것처럼, 앞으로도 일반인과 청소년들에게도 미술에 대한 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문화 다양성과 상상력, 창의성을 넓혀가는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사진=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3일 문화정보원 아시아문화박물관을 찾은 시민이 무인안내기에서 자신의 심리 상태에 맞는 키워드를 선택해 책을 추천받고 책 처방전을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인 ‘책 GPT’를 이용하고 있다.

ACC 제공

“독서의 달에는 서(書)로 만나보세요”

ACC, 책 GPT·책 기부 캠페인 29일까지 아시아문화박물관서

독서의 달을 맞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책으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은 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문화정보원 아시아문화박물관에서 고민·성격 유형별 도서 추천 서비스인 ‘책 GPT’와 기부 도서 수익금으로 지역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책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

‘책 GPT’는 무인 안내기(키오스크)에서 자신의 심리 상태에 맞는 키워드를 선택해 책을 추천 받고, 책 처방전을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다. 처방지를 가지고 지역 동네 서점(충장서림, 예림문고, 광우서적)에 방문하면 추천 도서를 정가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무인 안내기(키오스크)와 함께 추천 도서 70여 권도 현장에 전시된다. 추천 도서는 전국 40여 곳의 동네서점들이 모여 만든 ‘한국서점연합회의’의 책 처방전인 ‘중이 약국’과 매달 수많은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는 서점인들이 꼽은 책으로 구성된

있다.

또 집에서 잠자고 있는 책을 기부하면 기부한 도서의 수익금으로 지역의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책 기부 캠페인’을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운영한다. 기부는 최근 7년 이내 출간한 도서만 가능하며 기부자 정보를 입력하면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된다.

또 오는 28~29일까지 ‘서(書)로 만나는 사이’라는 주제로 ‘책 읽는 ACC’를 열어 △음악으로 문학작품을 만나보는 ‘북버스킹’ △독립 서점 및 출판사가 꾸리는 ‘북마켓’ △예술가와 농부들이 함께하는 ‘문화리 리버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 확인과 북버스킹 공연 예매는 ACC 누리집(www.acc.go.kr)과 ACC 누리 소통망(SNS)에서 하면 된다.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독서의 달을 맞아 책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책으로 이웃과 함께 할 수 있을 시간을 마련했다”면서 “9월 내내 ACC에서 문학을 주제로 펼쳐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서(書)로 소통하는 마음 풍성한 가을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광주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거칠게 아름답게’ 공연

27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서 라흐마니노프·프로코피예프 작품

광주시립교향악단은 오는 27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387회 정기연주회 ‘거칠게 아름답게’를 펼친다.

이날 연주회는 지휘자 최희준과 피아니스트 한상일의 협연으로 러시아 낭만주의의 거장 라흐마니노프와 프로코피예프의 작품을 선보인다.

연주회의 포문을 여는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은 특유의 타악기적인 피아노 음색과 독특한 관현악 소리가 어우러져 강한 생명력과 역동성뿐 아니라 부드러운 화성과 서정적인 표현도 돋보여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어 후반부에서는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을 연주한다. 이 곡은 논리적인 전개와 감정의 드라마가 잘 혼합된 작품으로 러시아적 감성 측면에서 차이콥스키의 뒤를 잇는 교향곡이라는 평을 듣는다. 감성에 호소하는 애절한 선율과 민속 춤곡을 닮은 활기찬 리듬이 강하게 가슴을 파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오는 27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387회 정기연주회 ‘거칠게 아름답게’를 펼친다.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고든다.

피아니스트 한상일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과정, 독일 뉘른베르크 음악대학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했다.

2005년 프랑스 에피날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1위 없는 2위에 오르며 세계 무대에 등장했고, 이듬해 2006년 미국 미주리 서던 국제 피아노 콩쿠르 3위, 2011년 이탈리아 부조니 국제 콩쿠르에서는 파이널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2016년 SONY Classical에서 첫 정규 솔로음반 ‘라흐마니노프&프로코피예프’를 발매했다.

이날 광주시향을 이끌 지휘자 최희준은 한양대학교 지휘전공 교수 및 제7대 수원시립교향악단의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재직 중이다. 그는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대 지휘과에서 디플롬과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하고 드레스덴 국립음대 개교 이래 최초로 지휘과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했다.

연주회 티켓은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과 티켓링크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입장권은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이며 초등학교생부터 입장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2024 광주예술인아카데미 예비예술인 과정 참여자 모집

9일까지 광주문화재단 온라인 접수 공연·시각예술 분야 각각 20명씩

광주문화재단은 2024 광주예술인아카데미 예비예술인 과정의 참여자를 오는 9일 오후 5시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광주예술인아카데미 예비예술인 과정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운영으로 예비예술인에서 전문예술가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과정은 △예술의 가치에 대해 생

각해 볼 수 있는 입문 강의 △예술 현장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 선배와의 대화(분야별 현장답사 및 특강) △전문성 강화를 위한 스피치 강의와 저작권 교육 등 3가지로 구성됐다.

교육에는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지역 예비예술인을 위한 강의를 펼칠 예정이다.

교육은 오는 20일, 21일, 27일 3차례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저녁시간대와 주말 오후 시간대에 진행된다.

과정은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일정 기

준을 충족한 교육생에게는 교육수료증이 발급된다.

이번 과정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예비예술인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총 40명으로 공연예술분야와 시각예술분야 참여자 각각 20명씩을 모집할 예정이다. 수강 희망 분야는 개인 전공 분야와 관계 없이 선택 가능하다.

과정 참여 희망자는 오는 9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문화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